

# 패션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

—콜셋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tishism in Fashion

—Focused on corset and shoes—

서일전문대학 의상과  
전임강사 이 의 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 수 양 숙 희

Dept. of Fashion Design, Seoil Junior College

Lecturer : Eui Ju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

Prof. : Sook Hee Yang

###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Women's clothes which represent femininity was one of the female oppression polices in the society of phallogentric sexual order. Many women were eager to good-looking as a camouflage for inferiority of their own sex, which was the theory of fashion of Freud. He insist that it's the driving force for women fashion. Tight-lacing corset, high heel and foot-binding, which was made for men's pleasure, limited women's social activity and unfortunately recycled. Such clothes or shoes makes women belong to men's power but its also one of the self controls for women. The materialization and sex objects of women was due to fashion, which encouraged by men. Many facts of fetish gradually emerged in fashion and fetishism itself is no more than sexual perversion or low class sex culture.

This paper is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fetishism and fashion, which approaching based the feminism. We investigated how human ambivalence which

pursuit both modesty and fetishism is manifested in clothes. We also compared modern fetish fashion with corset and shoes, which are stereotypes of classic fetishism

## 1. 서론

여성의복은 여성성(femininity)과 여성신체와 불가분의 관계일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즉 가부장제도와 밀접하다. 또 남-여, 정신-육체, 이성-감성, 우월-지배, 공격-사적, 문화-자연이라는 서구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프로이드와 다윈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와 다윈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하여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이론을 개인, 민족, 인종에 적용하여 성차별주의(sexism)와 인종차별주의(racism)를 낳았다. 여성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보았고, 여성의복의 일부 아이템이 페티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성들은 원초적인 성적 열등성에 대한 대상(代償)으로서 외적인 미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성패션의 본질이라는 것이 프로이드의 패션이론이다.

19세기 빅토리아시대의 낭만적인 아귀글래스 실루엣을 살펴보면 남성의 시각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여성의 신체는 훈련의 장소로서 제공되었고, 타이트레이싱 콜셋이나 전족, 하이힐을 이용한 신체수정(body-modification)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신체를 속박하는 타이트레이싱 콜셋(tight-lacing corset)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극히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남성에게 예속되는 결과와 함께 여성들의 자기통제의 효과가 있었다.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간 착용시 근육의 약화로 인한 질병과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였다. 여성의 유물화내지는 성적대상의 수단으로써 패션이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남성들에 의해서 고무되고 조장되어졌다. 전족과 하이힐은 콜셋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성적유희를 위한 여성학대

의 표본이며, 여성억압의 잔인한 제도였다.

페티시즘이 오늘날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은밀했던 행위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페티시한 도구와 이미지가 스타일 요소(style factor)로서 대중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심리의 반영이며 가부장제 사회의 수단이었던 여성복식과 페티시즘을 정신분석학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보았다. 과거의 하위문화였던 페티시즘이 대중패션과 결합하는 양상을 페티시 패션의 전형(stereotype)인 콜셋과 슈즈의 예를 통하여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 II. 본론

### 1. 페미니즘, 프로이드·다윈 이론과 패션

#### (1) 페미니즘과 프로이드의 이론(Feminism & Freudism)

프로이드는 여성에 관한 여러편의 중요한 저서와 논문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범욕설(汎欲說)'과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심층심리를 중요시하는 정신분석학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은 모두 똑같은 성기를 지녔을 것이라고만 믿던 꼬마들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자에게는 거세불안증으로 자기의 성기가 여자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고, 여자아이는 남근선망으로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sup>1)</sup> 이같은 개념은 프로이드의 리비도(Libido)의 발달단계중 제3단계인 남근기(男根期, Phallic Phase: 4~6세)에 나타나게 되는 오이디푸스

1) Strachey J. Sigmund Freud(London: the Hogarth Press, 1973), VII, p.195.

\* 칼 융(karl Jung)은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여아의 경우에는 '엘렉트라콤플렉스(Electracomplex)'라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프로이드는 남아나 여아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컴플렉스(Oedipus Complex)와 거세불안증(Castration Complex 또는 Anxiety), 남근선망(男根羨望, Penis Envy)의 이론이다. 프로이드는 성적원동력(sex energy)인 리비도의 이동에 의해서 성감대(erotogenic zone)가 출생시에는 입술에서 다음에 항문 그리고 성기로 바뀐다고 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하나의 특유한 개념이다. \* 프로이드는 아동이 자기 어머니를 이성으로 생각하려는 본능을 인간이 숙명적으로 지니고 나오는 원초적 비극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개념한 근친상간(近新相姦, Incest)이다. 마치 오이디푸스왕이 자기 생모를 모르고 왕비로 맞아들였듯이 최초의 이성으로서 아동이 생각하는 욕구가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며 남근기에 나타난다.

자기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챈 아빠가 갑자기 복수심에서 자기의 남근을 제거해버리거나 앓을까하는 불안심리가 거세불안증이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사내아이가 자기와는 다른 신체부분(성기)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부러워하여 엄마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심리가 남근선망이다. 아동이 부친에게 갖는 심리는 모친으로 인한 적대감과 동시에, 전지전능(全知全能, almighty), 절대적 권위에 대한 안정감과 보호감 사이에서 이른바 양가감정(ambivalence)적인 심리적갈등을 겪는데, 이것이 뒤에 초자아(super-ego)단계에서 도덕성이나 양심의 근본을 이룬다고 프로이드는 설명한다. 결국 부친을 자기의 이상형으로서 동일시(identify)하는 좋은 결과로 발전된다. 남근기에서는 리비도가 성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기에(自己愛, narcissism)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도취상태인 나르시시즘의 심리란 자신애(自身愛, autoerotism)와 타인애(他人愛, alloerotism)의 중간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성적도착(性的倒着, sexual perversion)의 한 형태이다.<sup>2)</sup> 프로이드사상의 핵심인 페니스선망과 거세콤플렉스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가설에서 주장된 것이다.

“만약 페니스선망 개념에 여하한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남성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 세력, 자유, 지배에 대한 여성의 선망에 기인하는 것이다.”<sup>3)</sup> 라고 클라라 톰슨은 말했고, 시몬느 드 보봐르도 “어린 소녀가 페니스선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사내 아이들이 누리는 특권의 상징으로서일 뿐이다.”<sup>4)</sup> 라고 했다. 또 프로이드는 페니스 선망을 여성 나르시즘의 원인이라고 시사했다. 왜냐하면 여성은 그들의 원초적인 성적 열등성에 대한 이후의 대상으로서 외적인 미에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기에의 도취는 여성이 짝을 유인하는 문제에 경제적 생존을 걸어야 했던 사회적 이유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견해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주제로한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여성불행의 원천이 바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또, 프로이드는 후기 저서 <문명과 그것의 불만족(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1930)에서 여성은 문명에 대해 파괴적 태도를 가진다고 했다. 즉“여성은 문명과 대립하게 되어, 문명을 지체시키고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했다. 여성이 파괴적인 도덕구조를 소유한다는 프로이드의 주장에 반하여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배적인 남성적 특성들의 안티테제(antithesis)로 형성된 여성적 특성들은 수용성, 민감성, 비폭력, 유연성 등일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실로 지배와 착취의 정반대 개념이다. 기본적인 심리학 차원에서 볼때, 그들은 에로스영역에 속할 것이고, 죽음본능과 파리적 에네르기에 대항하는 삶본능의 에네르기를 표현할 것이다.”<sup>5)</sup>

## (2) 페미니즘과 다윈의 이론(Feminism & Darwinism)

19세기후반 서구 사상계를 휩쓸었던 ‘사회적 다위

2) 상계서 p.88.

3) Clara Thompson, Penis Envy in Women, In Miller, Psychoanalysis And Women(1943), pp.43-48.

4)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1949), (New York: Bantan. 1961), p.37.

5) Herbert Marcuse, Marxism And Feminism, Women's Studies.2. NO 3, (1974), p.283.

니즘(Social Darwinism)'은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로, 페미니스트들의 저주의 대상인 '경쟁과 전쟁의 철학'을 지지해 주었으며, 다윈의 명제는 뉴턴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즉시 그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이론은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혹은 <생존경쟁에 유리한 종족의 보존(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이란 저서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다윈 이론의 골격은, 식물과 동물의 종(種)은 수세기에 걸쳐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주로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환경은 더욱더 잘 적응하는 종들을 '선택(selection)'한다. 개체군의 압력 때문에 덜 적합한 것은 차차 소멸하고, 보다 적합한 것은 새로운 변종 혹은 새로운 품종을 산출하기 위해서 살아남는다. 진화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성적 선택'이다. "암수 분리된 성을 가진 동물에게는 대부분 암컷을 소유하기 위한 수컷들 간의 투쟁이 있을 것이다. 가장 정력적인 수컷이, 혹은 삶의 조건과 가장 성공적으로 투쟁한 놈이 일반적으로 자손을 남기게 될 것이다."<sup>6)</sup> 이 이론은 다윈의 두번째 주요 저서인 <인간의 혈통: 성관계에 있어서의 선택(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1871)에서 더욱 완전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책은 남성우월주의를 공포하였다. 다윈의 이론속에 사회적 다윈니즘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다윈니즘은 다윈의 개념들 - 특히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용어를 다윈이 사용한 것은 아니다) - 을 사회, 인종, 개인에 적용하였다. 다윈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부(上部)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혹은 누구건간에 냉혹한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존재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수적인 철학이었다. 이는 또한 종족보존은 공격적이고 경제적인 남성들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사회주의적 다윈니스트들은 이 이론을 더욱 확장하여 진화 혹은 발전은 잔인한 경쟁과 전쟁에 의해서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인생이 향상된다는 이론은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와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같은 미국 자본주의자들에게 편리한 정당화의 동기를 제공해주었다. 즉, 최적자만이 생존하여 최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논리에 영향 받아 자본가 자신이 이룩한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한편,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부의 축적대열에 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종차별주의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사회적다윈니즘 사상에서는 중요한 특질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종족은 경쟁적인 기술보다는 협동적인 기술을 요하는 더욱 집단적인 체제를 향해서 발전한다고 본 점이다. 따라서 종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미덕인 이타주의가 필요하다. 피터 크로포드킨(Peter Kropotkin)의 <상호부조론(Mutual Aid)> (1890)이나 샬럿 퍼킨스 길만(Charlotte Perkins Gilman)의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ics)> (1898)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길만은 "여성의 종속화는 종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자연스러운 탈선이다."라고 사회적 다윈니즘의 남성 우월론에 반박했다.

### (3) 프로이드와 다윈의 제이론

#### ① 프로이드와 패션

성적 매력(sex appeal)이론 즉, 성욕을 자극하는 부위의 이동에 관한 이론(Theory Of The Shifting Erogenous Zone)은 패션의 동력과 여성패션의 주목적이 이성을 유혹하려는 욕구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여성패션을 신체부위 중 특정부분의 선택적인 노출, 은폐, 강조를 통해서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유혹의 원칙(seduction principle)에 의하여 조절된다. 남성은 여성의 가슴, 허프, 뒷모습 등의 2차성징의 부위나 다리, 발, 등, 허리, 어깨 등의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부위에 성적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와같이 변

6) Charles Darwin, *The Origin Of Species*(1859) in *Man And Universe: The Philosephers Of Science*, ed. Saxe Cummins And Robert N. Linscott, (New York: Washington Square, 1954), p.254.

화하는 에로틱한 부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패션의 작업이라는 것이다.

플루겔(J. C. Flugel)은 프로이드의 에로틱 존(erotic zone)개념을 확대하여 개인의 성격, 심리적 발달상황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수용된 태도를 연관시켰다. 곧 버슬과 같이 패션에서 뒷모습이 강조된 때에는 향문기 단계로의 복귀를 뜻하고, 가슴의 강조는 구강기 단계와 연결됨을 의미한다고 했다. 크리놀린은 히프를, 버슬은 뒷모습을, 에드워드 왕조시대의 블라우스는 가슴을, 1920년대의 의상은 다리를, 1930년대의 이브닝 드레스는 등을 강조하면서 에로틱 존을 이동시켜왔다고 했다. 프로이드는 미의 기원을 성적인 흥분에 두고, 원래 의미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남성에게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성에게는 남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다른 부분을 노출하여 이를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결국 신체를 노출하려 하기 때문에 여성의 복은 에로틱하다는 것이다. 또 여성은 성장과정 중 자기에 단계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외양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결국 신체보다 의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성의 의상에 대한 집착은 사회적으로 조장되고 고무되어 왔는데, 이는 가부장적 사회하에서 여성을 종속시키는 수단으로써 패션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원시사회의 남근 숭배는 문화발전에 따라 성적인 것과 신적인 것으로 양분되었으며 성적인 것은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미는 성기자체에서 떠나 2차적 성장에 대한 애착으로 전이되어 결국 오늘날 미와 성적인 것이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졌다고 했다. 의복에 있어서의 성적인 노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접적이고 승화되어 상징적인 형태로 진보하여왔다. 즉 성기를 노골적으로 장식하거나 노출하는 일이 줄어드는 반면, 성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인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색상, 실루엣, 장식의 변화등 새로운 패션의 출현은 관찰자의 성적인 면에 호소한다.

## ② 다윈과 패션

다윈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성행위의 많은 부분이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이라는 보편적 과정을

통하여 진화해왔으며, 그 이유는 자연선택이 장기간에 걸쳐 적응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의 2차적인 성장은 그대로 진화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생식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 정보는 개체의 경우에 있어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만일 남성이 큰가슴, 잘록한 허리, 부드러운 피부의 여성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최대한의 생식능력을 가진 젊은 성인 여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은 선택되어 진 후 그 유전자가 다음세대를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적 매력이 없는 여성에 비하여 크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패션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동물의 세계에서 2차적성징(사슴의 가지진 뿔이나 선명한 색상의 깃털 등)은 다른 이성에게는 하나의 성적 매력을 증진 또는 억제 시킬수 있는 변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패션(biological fashion)'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2차적 성징들은 성적 매력으로서 남게되고 세대를 지남에 따라 생식 적합성을 가진 그 인자들이 선택되어진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종족 내에서 우세한 인자로서 전수된다.

수컷과 암컷은 각기 다른 '진화의 전략(evolutionary strategies)'을 가진다. 출산과 수유의 부담이 없는 수컷 포유동물은 가능한 많은 암컷들과 짝짓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유전형질을 최대한 퍼뜨릴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남성들도 자신과 성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즉 외관상 생식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여성과 짝짓기 위해 계속 주위를 탐색하는 과정의 결과로써 성적으로 흥분하는 즉, 시각적으로 매우 잘 적응된 유형으로 진화된 듯하다. 결국 남성들은 시각적으로 붉으로써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성향을 띠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페티쉬한 측면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도 생물학적인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장된 아워글라스 형태의 콜셋은 많은 남성들을 매료시키는데, 이같은 과장된 형태가 대다수 남성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매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 2. 페티시즘

### (1) 페티시즘의 발생과 발전

페티시(fetish)란 말은 마술적 매력(magic charm)의 의미로서 조각품, 인공물, 외관과 표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뜻한다. 페티시즘(fetishism)의 원래 의미는 종교적, 인류학적 의미로서 고대의 '목각제품이나 진흙의 우상'을 숭배했던 원시인들의 비이성적인 숭배를 뜻한다. 인간의 성기관과 성행위에 관한 흔적은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존재해왔다. 바위에 굽어 새긴 흔적에서부터 정교한 철학적, 예술적 산물인 'Kama Sutra'(4C 경 바투야야나가 지음. 고대 인도의 성애문헌 중 가장 오래되고 중요하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페티시즘의 역사에 대한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페티시즘이 많은 문화권에서 수천년동안 존재해 왔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티시즘은 오직 현대 서구사회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양쪽 다 증거가 있다. 전자의 증거로는, 신체수정과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은 많은 문화권의 여러 종족에게서 흔히 있는 일이다. 로마의 시인 Ovid는 여성의 발에 매료되었고, 중국의 전족(foot-binding)은 페티시즘과 관련된 많은 특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뉴기니아의 잠비아족(sambia)은 부족간의 펠라치오(fellatio, 口淫)에 심취하고 있으며 소년의 입을 페티시하게 만든다. 또, 입술원반(lip-plate)과 목원반(neck-ring)등으로써 특정 신체부위를 페티시하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후자의 증거로는, 비록 페티시즘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의 많은 남성들의 특징이기는 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페티시즘은 18세기 유럽에서 처음 등장하여 19세기 후반에 성적인 현상으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는 과도기였으며 그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들이 점차 현대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때였다.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의 사고가 싹텄고, 자유로운 인식과 성적인 방향이 팽배했다. 둘째, 유럽의 자본주의와 도시화의 발달은 스스로가 '페티시스트'임을

을 자각할수 있는 환경과 다른 페티시스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생물학 또한 페티시즘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7)</sup>

19세기초 페티시즘이란 용어는 비이성적으로 숭배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던 광범위한 개념이었다. 이것을 현대의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Alfred Binet로서 그의 정신분석학적인 수필<Le Fetichisme dans l'amour(사랑에 있어서의 페티시즘)> (The Revue Philosophique, 1887)에서 었다. 당시 에로틱 페티시즘의 개념은 '성적 이탈(Sexual Deviations)'을 연구함으로써 채택된 개념이었다. 19세기 독일의 성 심리학자 Richard Von Krafft-Ebing은 페티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페티시즘은 여성신체의 특정부위와 관련된 개념과 욕정과 결함체, 또는 여성복장의 특정품목과 욕정과 결함체이다." Ebing은 새디즘(sadism) - marguis de sade 의 이름을 따서 붙임 -과 마조키즘(masochism) - Venus in Furs 라는 고전적 페티쉬 소설의 저자 Leopold Von Sacher-Masoch 의 이름을 따서 붙임 -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 또 그는 정상적인 에로틱 페티시즘과 성도착적 페티시즘으로 구분하였다. 그후, 다양한 의미를 가진 페티시즘 개념에 대하여 여러가지 학설들이 제기되었고, 결국 페티시즘은 성(sexuality)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성의 힘(sex power)과 성의 인식(sex perception)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페티시즘은 애정대상의 대용물로서, 하이힐이나 타이트레이싱 콜셋같은 의복아이템이나, 발이나 머리카락같은 신체부위에 대해 성도착증적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페티시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발, 머리카락, 피부, 허리, 가슴같은 신체부위나 불구등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의상전체나 구두, 페티코우트, 콜셋같은 특징의복 또는 모피, 실크, 벨벳, 고무, 가죽 등의 소재가 있다.

### (2) 페티시즘 제이론

페미니즘은 남성의 성적 행동이 여성을 착취하고 비인간화시키는 방법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끝수

7) Valerie Steele, Fetishi(London: Oxford Univ. Press, 1996), p.21-22.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적 시각에 기준한 에로틱한 패션과 패션의 대상인 여성들을 비난했다. 페티시는 유물숭배와 여성의 유물화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므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페티시의 주체는 늘 남자였던 반면 여성들을 페티시의 대상이었다. 프로이드는 남근 상징주의(phallic symbolism)이라는 말로써 페티시즘을 해석했으며 이 남근숭배사상(phallogocentrism)때문에 프로이드는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남근숭배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페티시는 남녀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성적 관심을 전이시킴으로써 성의 질서를 깨뜨렸다. 이것은 결국 남녀양성의 성개념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페티시는 성을 무생물의 개념으로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정상범주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페티시즘은 남근숭배의 성적 위계를 한계에 부딪치게 하고 그것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성도착으로 분류된다.”<sup>8)</sup>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페티시는 거세당한 모친의 페니스 대체물이며, 여성이 페니스를 거세당했기 때문에 남성 자신도 거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페티시는 한때 소년시절에 존재하리라고 믿었던 여성의 페니스의 대체물로서, 여성이 거세당했다는 거세공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이 여성에게는 페니스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자각과,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페니스 선망과 초기의 믿음사이의 무의식적인 질충으로 나타난다. 페티시는 거세공포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페니스의 중요성을 여성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의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Louise Kaplan은 프로이드에 비해서 페티시즘을 더욱 생생하고 신빙성있게 제시하지만 기본학설은 프로이드에 기초하고 있다. “어린시절의 호기심, 공상, 공포, 그리고 모친의 대체된 페니스를 갖기 바라는 마음은 어린소년의 마음에 일시적이고 도파적인 환

상을 키운다. 그리하여 성인 페티시스트가 되어 신발이나 모피 등에 애착을 느끼게 된다. 프로이드가 주장했듯이 어린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성장하면서 잊혀지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억눌려 있을 뿐이며 결국은 돌아오게 될 무의식적 환상으로서 존재한다. 억눌린 성적 환상은 실제 조건 상상속이건 남성성에 심각한 위협으로서 존재하게 된다.”<sup>9)</sup> 프로이드에 따르면 성인 페티시스트가 여성 성기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성들에게 성적 대상이 될수 있는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티시의 대상은 ‘거세공포의 위협을 극복하고 보호한 승리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 결여된 남근의 대체물로서 선택된 대상물인 페티시는 여성이 남근을 소유하고자 여겨지던 최후의 순간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속옷류는 옷을 벗는 순간을 상징하며, 모피와 벨벳은 페니스의 부재가 드러난 시기의 음모와 연관된다. 발은 원래 페니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므로 구두를 페티시의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발이 페니스를 대신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 구두는 어린 소년이 모친의 스커트 밑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또 여성은 거세공포를 느끼지 않으므로 여성이 페티시스트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sup>10)</sup> 다수의 정상인들이 신체의 일부나 의복에 매료된다는 사실을 페티시즘의 전형적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성도착 현상과는 별개로 성적 대상물에 부수된 필수조건으로서 신체일부나 의복을 갈망하는 경우, 에로틱 심벌리즘(erotic symbolism) 개념으로써 페티시즘을 설명할수 있다. 예로써, 발과 신발의 페티시즘은 자극을 감지하는 발의 감수성에서 유래하는 동시에 발의 남근 상징성과 신발의 양성적 상징성에 기인한다.

정신분석학자 Robert Stoller의 남성에 대한 연구 <유아 페티시스트(a Child Fetishist)>란 연구에 의하

8) Tina Papoulias, *Fetishism: in the Sexual Imagination from Acker to Zola: a feminist companion*, ed. Harriet Gilbert(London: cape, 1993), pp.89-90.

9) Louise Kaplan, *Female Perversions: The Temptations Of Emma Bovary*(New York: doubleday, 1991), p.54.

10) S. Freud, *Fetishism: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London: Hogarth Press, 1953-1975), Vol.21, p.152-154.

면 2.5세된 유아는 자기모친의 스타킹과 팬티호스(Panty Hose)에 성적으로 집착한다고 했다. Stoller 주장에 의하면 페티시를 모친의 페니스나 모친의 풍만한 가슴과 동일시하는 것은 피부와 같은 또다른 모친의 신체부위도 역시 페티시하다는 것을 저해하는 이론이다. 또 남성편견의 한 형태인 거세공포와 남근선망은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가설에서 비롯된 개념이며, 여성성기라는 국한된 개념에만 적용했다. 여성들 역시 성의 주체이므로 성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 3. 패션과 페티시즘

#### (1) 패션과 페티시즘

프랑스 역사가 Alin Corbin은 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185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 사이에 급격히 변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19세기말과 1970년대의 성문화를 비교했는데 "1970년대에 성적인 이미지가 잡지나 섹스도구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19세기말(1890-1900년) 모든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의 귀족의 에로티시즘 영역이었던 성적 취향이나 섹스테크닉, 성적 환상등이 확산되었던 것과 똑같다."<sup>11)</sup> Corbin의 주장에 의하면, 성 도착은 부르조아 계층을 통해 하향전파되어 노동자계층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매춘부들은 환상적 의상을 입게 되었는데 특히 결혼신부복이나 수녀복이 매춘부들이 인기있었고, 여학생복과 하녀복도 애용했던 의상이다. 그들은 또 매우 비싸고 패셔너블한 네글리제도 즐겨입었다. 매춘부들의 흰 피부를 돋보이게하기 위해 검은 카펫이나 검은색 방이 사용되었다. Ebing에 의하면 유곽의 손님들이 특정한 의상, 예를 들어 발레복이나 수녀복같은 의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유곽에는 이런 목적의 의상들을 갖추고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성혁명의 원인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복합 요인에 있다. Corbin에 의하면 첫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불법적이었던 성이 점차로 하향전파 되었다. 이러한 전파는 음식이나 의복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소비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페미니즘의 발달은 19세기 후반 성의 가시화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성과학이 확산되었고 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성인들에게 보급되었다. 페티시즘은 19세기 성혁명의 일환으로서 대두되었으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18세기에 이미 귀족들에 의해서 성도착이 하향전파 되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티시즘이 19세기의 병적 현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차세계대전 후 보수 성향의 증가로 인하여 페티시스트들이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패션 주류에는 아직 많은 페티시요소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Christian Dior의 New Look(1947년)은 변형된 콜셋을 다시 패션에 도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잘록한 허리'의 의상과 함께 뽀족굽 구두와 페티코트 그리고 포인티드 브래지어(Pointed Brassiere) 등의 의상이 성행하였다. 후세 페티시스트들은 1950년대를 페티시즘의 '백은시대(Silver age)'라고 하여 페티시즘의 황금시대(Golden age)였던 빅토리아 시대보다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극단적여성(ultra-feminine)패션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대중패션의 발달과 같은 패션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냉전같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있다. 냉전은 여성의 성역할, 성의 상징 등 과거의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페티시즘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에 또다시 절정에 달했지만 개념상의 진보는 없었다. 자본주의 역시 페티시한 패션의 출현에 한몫을 했다. 그것은 패션 자체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발달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패션이 페티시스트들의 의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다. 페티시 패션이 유행을 추구하는 대중들 사

11) Alain Corbin, Women For Hire: pro Stitution And Sexuality In France After 1850, Trans. Alan Sheridan(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0), pp.125-126.

12) Richard Von Krafft-ebing, Psychopathia Sexualis With Especial Reference To Tre Antipathic Sexual Instinct: a Medico-Forensic Study, Trans. F. J. Rebman 1886(New York: Physicians And Surgeons Books Company, 1934), p.249.



이에서 ‘스타일요소(style factor)’로서 인정되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채택되어지고 채택된 스타일은 대량생산에 의해 유행된다. 각종 콜셋, 가죽, 고무, 모피나 새틴 소재의 옷, 길고 밀착된 스커트, 찢어진 의상, 지퍼달린 bottines(발에 딱맞는 반장화)등의 페티시한 의상들이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 - Azzedine Alaïa, Thierry Mugler, Claude Montana, Jean Paul Gaultier, Vivienne Westwood, Zandra Rhodes 등 - 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페티시한 요소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밀물과 썰물같은 시즌 컬렉션에서 패션은 페티시한 스타일을 점차로 강조해오고 있다. 페티시즘이 이 시대 역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페티시즘이 더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은밀했던 행위들이 점차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페티시즘과 관련된 물건과 이미지가 패션으로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 (2) 페티시 패션

### ① 킨키부츠(Kinky Boots)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성해방운동은 성적 일탈을 낳았다. 빅토리아시대에 터부시했던 육체적 쾌락에 눈뜨기 시작하여 인간의 성을 긍정하고 따라서 점차로 자본주의 부르조아 계층에 의해 도착적이고 유흥적인 성에 탐닉하게 되었다. 대중이 받아들인 최초의 페티시 패션은 소위 ‘킨키부츠(kinky boots)’였다.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애용하던 이 하이힐의 가죽부츠는 무릎길이 또는 허벅지 길이였고, 버튼이나 레이스로 묶는다.

### ② 캣슈츠(Catsuits)

니트로 만들어진 여성용 보디슈트 즉 레오타드(Leotard: 곡예사나 댄서들이 입는 소매없고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로 본래 발레리나가 연습복으로 착용하는 레오타드 중에서도 긴 소매가 달려있고 발목까지의 팬츠식으로 된 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검정의 것등은 마치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데서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 TV쇼<보복자(The Avenger)>는 대중 페티시 패션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엠마 필

(Emma Peel)역의 다이아나 리그(Dianna Rigg)는 힘 있고 섹시한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입은 가죽의 캣슈츠는 기성복의 페티시 의상으로 제작됨으로써 대중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 의상은 지나치게 페티시하다고 여겨져 얼굴 전체에 가면이나 후드를 쓰고 등장했었다. 1990년 엠마필스타일이 재현되었는데 이는 60년대 복고풍 패션 특히 캣슈츠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필의 이미지는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로서 패션신문에 알려졌다. 스타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건간에 그녀의 이미지는 남성디자이너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시대성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펑크(Punk)

비비안 웨스트우드는“1970년대 초는 전반적으로 패션에 새도마조키즘의 표현시대였다”라고 평했다. 웨스트우드는 펑크 디자인의 선두주자였고, 당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 펑크는 <섹스 피스톨스(Sex Pistols)>같은 록밴드 우상을 만들어낸 젊은층의 하위문화이며 특히 패션에 페티시즘을 적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런던에 있었던 록밴드들의 스테이지 의상에서 시작된 펑크 패션은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가죽옷, 싸구려 소재(플라스틱, 루렉스 등)를 이용한 저속한 의상을 즐겨입었다. 상식과 사회통념을 타파한 이 스타일은 도그칼라(Dog Collar)나 체인같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패션을 사용한 반항적 스타일 이었다. 또 그물망스타킹, 뽀족굽힐, 투명 브레이지어, 고무 방수외투같은 성적으로 진부한 패션 품목들을 요령있게 사용하여 페티쉬한 감각을 불러일으킨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즐겨 입었던 가죽소재는 급진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페티시한 패션은 젊음을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④ 테러리스트 슈크(Terrorist Chic)

섹스와 폭력의 저류(底流)가 하위문화 스타일에서는 제한없이 표현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70년대 패션은 성도착적인 에로티시즘과 새도마조키스틱한 폭력성의 암울한 특징을 나타냈는데 어느 학자는 이런 경향을‘테러리스트 슈크’라고 했다. 이는 60년대의 환상적 의상에 대한 반동인 야수적 의상스타일이

다. 백화점의 마네킹들에 눈가리개를 하거나 묶어 놓거나 아예 접어 놓았으며, 패션잡지들은 성도착이나 퇴폐주의를 강조했다. “카바레 히피족풍과 도착적 성풍속이 오늘의 퇴폐주의에서 부활되고있다”라는 글이 미국 보그지에 실렸다. Helmut Newton은 페티시즘 의상을 창조한 사진예술가였는데 그의 사진 작품은 섹스와 파워를 패션에 도입했던 테러리스트 복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경에 이르러 하이패션도 뉴튼의 패션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우 섹스어필한데, 주로 관음증(觀淫症) 환자, 노출증환자, 매춘부, 페티시스트, 새도마조키스트 또는 복장도착자 등이다.

#### 4. 콜셋

##### (1) 여성의 콜셋

David Kunzle에 의하면 19세기 성적으로 개방되었던 여성 페티시스트들은 매우 타이트한 콜셋류를 착용함으로써 압박받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다고 했다.<sup>13)</sup> 신발과 함께 콜셋은 가장 중요한 페티시패션 중의 하나다. 콜셋은 19세기 여성들이 착용했던 것 같은 평범한 콜셋류와, 때때로 새도마조키스트들과 복장도착들의 페티시한 타이트레이싱 콜셋으로 구분된다. 빅토리아시대 여성들 대부분이 콜셋을 착용했지만, 오늘날 7인치 굽의 페티시한 하이힐을 착용하는 여성이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9세기 여성들이 16인치 허리의 타이트레이싱 애호가는 아니었다. 콜셋은 어떤 다른 의복아이템보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하나는 의학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이유 때문이다. 콜셋의 의학적 측면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녀를 타이트하게 조여라”는 잔인한 충고가 19세기 문헌에 자주 등장해 왔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것같이” 고통스런 타이트레이싱은 페미니즘 측면에서 불쾌 교묘한 여성 억압정책의 일환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콜셋 고문의 증거로서 EDM (English Women's Domestic Magazine)에 실렸던 빅토리아 시대 유행했던 타이트레이싱에 관한 기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 보도내용들만으로 그 시대상을 특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EDM 통신자들의 기사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콜셋으로 어떤 다른 기사들보다 관심을 끌었으며 그 내용은 대략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극단적인 신체 수정을 목적으로 밤낮으로 타이트한 콜셋을 착용하는 경우와 둘째, 고통을 즐기는 SM(sadomasochism)적 희열과 ‘지배와 복종’의 의미를 내포한 에로틱한 의미로서의 콜셋 그리고 셋째, 남녀가 옷을 바꿔입는 복장도착 요인으로서의 콜셋이다. 16인치 허리와 같은 매우 작은 허리가 없었다고 할수는 없으나 역사적 증거들로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런 허리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19세기 여성 콜셋광고에 의하면, 콜셋은 보통 18인치에서 30인치였다. 31인치에서 36인치되는 콜셋도 널리 이용되었고 어떤광고에는 37인치 이상의 것도 보인다. EDM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가는 허리가 빅토리아시대 여성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이 시대 표준 허리사이즈가 16인치였다는 신화는 사실무근이다.

Fakir Musafar는 신체 수정에서 독보적 존재이며 대표적인 남성 콜셋 애호가이다. 그는 오늘날 콜셋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소위 ‘콜셋비동조자들(Corset Nonconformists)’로서 그들은 몸매를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지 콜셋을 이용했을 뿐이다. Fakir자신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둘째, ‘콜셋 인정자들(Corset Identificationists)’로서 그들은 콜셋을 여성다움의 상징으로 보고 상습적으로 착용하지만 몸매를 가꾸는데는 무관심하다. 콜셋을 착용함으로써 성전환된 듯한 느낌을 갖으며, 대다수의 복장도착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콜셋 마조키스트(Corset Masochists)’로서 그들은 에로틱한 고통을 음미하기 위해서 콜셋을 착

13)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Chap.9.

용한다.<sup>14)</sup> 콜셋은 '신체훈련'과 '속박'의 의미를 가진다. 남성의 여성적로의 성전환의 의미도 있는데 이때 콜셋은 여성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죄의식이 콜셋 착용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해 경감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다음은 기숙학교의 Nora라는 여학생의 글로서 “나는 15세때 런던의 상류사회의 기숙학교에 있었다. 교장이 충분히 가늘다고 인정할때까지 학생들은 매달 1인치씩 허리를 줄여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17세때 학교를 떠났을 때 내 허리는 23인치에서 13인치로 줄어있었다. 매일 아침 허너 한 명이 옷입는 것을 도왔고 여선생은 우리들의 콜셋이 가능한 한 타이트하게 조여지도록 감독했다.”<sup>15)</sup> EDM의 보도와 같이 콜셋 트레이닝을 하는 기숙학교가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데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며 Times같은 평판좋은 잡지는 여학교의 콜셋 고문같은 불확실한 기사는 실지 않고 있다. 다만 독자들의 사적인 서신이나 일부 페티시스트들의 기사에서만 많은 사실무근의 콜셋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다. 전기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Elizabeth여왕(1837-1898)은 19.5인치 허리의 소유자였다. 키 5피트 7.5인치, 몸무게는 단지 110파운드였고 다이어트와 운동 그리고 콜셋에 강박관념을 가졌던 여왕은 오늘날까지도 콜셋 열광자들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이다. 콜셋은 프랑스의 전위적 패션 디자이너인 Paul Poiret가 1907년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패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후 1910년경 까지 골제의 콜셋은 고무제의 거들과 브래지어로 교체되었다. 단지 소수 비만여성이나 나이든 여성들만이 임시방편으로 콜셋착용을 고수했다.

## (2) 남성의 콜셋

페티시스트에 대한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또다른 테마는 남성들의 콜셋 착용이었다. EDM(1867년 11월호)에 의하면 “나는 일전에 오스트리아의 학교에 다

녔었다. 그곳에서 신사들의 콜셋착용은 영국에서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처음 의사의 아내가 콜셋 착용을 권유했을때 나는 영국적 사고 방식 때문에 거절했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비엔나식 콜셋을 해야만했다. 매일 조금씩 조여지는 콜셋은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몇달후 다른 동료들처럼 나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타이트레이싱에서 오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움에 굴복하게 되며 이러한 감정은 성적 희열로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콜셋이 신체를 조일때 느끼는 쾌감이 마치 운동으로 인한 신체 단련시 느끼는 쾌감보다 한층 강한 자극으로서 작용하여 묘한 성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 크로스드레싱에서 오는 수치감은 그것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외국 문화권내에서 자연스럽게 불식된다. 그러나 19세기 대부분의 남성들은 콜셋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1820년대의 댄디들은 당시 유행하던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위해 종종 골제 콜셋을 착용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여성들처럼 역삼각형 실루엣의 상체를 이루어 남성적 매력울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다. 또 군대에서 사냥시 착용하거나 격렬한 운동시 척추 보호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Workwoman's Guide> (1838년)지가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척추 교정용이나 비만남성용 콜셋도 있었다. 군대에서는 직립자세를 위해 콜셋을 착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프러시아 장교복에서 그 예를 볼수 있다. 남성 콜셋과 타이트한 군복이 남군승배사상에서 비롯되었듯이 페티코트와 이어링 같은 복장도착 요소들도 이 사상과 관계있다. <London Life League>지는 남성의 콜셋을 지지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콜셋의 진가는 성을 초월한다. ...현대 남성들은 남성 콜셋착용의 역사를 가진 선조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옛 미노아시대 남성들이 최초로 콜셋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런 전통은 근대 영국 에드워드왕조의 댄디와 장교들에게로 계승되었다.”

14) Fakir Musafar, *Different Loving: An Exploration of the World of Sexual Dominance and Submission*(New York: Villard Books, 1994), p.311.

15) Nora, In EDM, May 1867, p.279.

## 5. 슈즈

### (1) 전족

5대10국 시기에 고대 중국을 대표하는 풍습 중의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전족'이라는 풍습이었다. <도산신문(道山新聞)>의 기사에 의하면 남당(南唐)의 제2대 원종(元宗) 이경(李璟)이 여자들의 발을 묶는 관습을 도입했다고 한다. 원종에게는 요랑이라는 춤 잘 추는 총첩이 있었다. 요랑이 6척이 넘는 높이의 큰 연꽃모양의 받침대 위에서 춤출때 천으로 발을 꽂꽂고 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궁녀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종의 총첩 요랑이 전족의 효시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는 없지만 5대10국시대에 전족 풍습이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송시대 때 이미 전족이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전족이란 계집아이가 4~5세 될 무렵부터 발을 긴 피륙으로 감아서 발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풍습인데 한마디로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전족의 유래에 대한 제설이 분분하다. 성기관의 특수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설도 있고, 부녀자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구속이 목적이란 설도 있다. 또한 전족을 하게 되면 뼈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날씬해지는 반면 엉덩이가 발달하여 성적 매력력이 커진다는 설도 있다.

송왕조 때 전족은 상류층에서 농민에게까지 퍼졌으며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전족은 여성의 유연한 발을 졸라매어 성장을 저지함으로써 기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4개의 작은 발가락은 발의 중심부 아래쪽으로 압박받고 엄지 발가락만 비어져 나온다. 뒷꿈치뼈가 전방으로 이동하고, 발바닥에 큰 공동(空洞)을 만들면서 발은 아이치 형태를 이룬다. 실루엣상으로는 하이힐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풍만한 여성의 둔부는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 하이힐의 유행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둔부가 뒤로 나오고 보행시 둔부의 움직임이 최고로 강조되는 것이다. 전족 여성의 자세는 직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고정시키고 발끝을 밖으로 벌리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오리처럼 뒤뚱거리고 걷는것을

연보(連步)라 하여 당시 남성들은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전족한 발에 길이가 세치밖에 안되고 폭이 두 손가락 합친 것만한 뽀족한 수단(繡緞)신을 신었다. 그래서 전족을 '세치금련(三寸金蓮)' 또는 '춘순(春筍: 봄의 죽순)'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 모양이 마치 '종자(粽子: 떡의 일종)'와 비슷해서 처음 천을 감는 날에는 종자를 먹게하는 풍습이 있었다. 송나라때부터 작고 뽀족한 여성의 발은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수단신을 힐끔 보기만 해도 걱정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발을 '황금 연꽃(golden lotus)' 즉 성적인 심벌로 여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 여성들은 성의 상징인 전족을 남자에게 보일까봐 밤에도 수단신을 벗지 않았을뿐 아니라 음부나 유방보다도 전족을 더 은밀한 부분으로 여겼다.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은 오히려 불구로 취급을 받았다. 남성들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집을 갈 수도 없었다.

전족은 하이힐이나 콜셋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직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여성학대의 표본이다. 여성억압의 잔인한 제도이며 페티시한 성의 한 형태이다. 중국의 전족 관습은 문화적 유사페티시즘(cultural quasi-fetishism)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3인치의 '황금 연꽃'의 발은 성적 이상형으로 칭송받았다. "손바닥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바라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라고 어느 송나라 시인이 말했다. 비틀비틀 걷는 여성의 걸음걸이는 성적 매력이었고, 전족은 질의 근육을 조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18세기에 Jesuit Father Ripa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는데, "여성과 성교하지 않고 단지 발을 애무하고 감상하는 비정상적인 경우와 같이 중국인들은 도착적 취향을 가졌다."<sup>16)</sup> 그러나 모든 중국 남성이 전족에 탐닉하지는 않았으며 3인치의 전족은 16인치의 허리만큼이나 드물었다. 전족이 과연 페티시한가? 프로이드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거세공포가 중국에서는 전족이라는 문화적으로 보편화된 관습에 의해서 완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족은 현재 서구 페티시즘과 관련이 있다. 즉 전족과 서구의 구두 페티

16) John k. Fairbank, the Great Chinese Revolution, 1800-1985(New York: Harper & Row, Perennial, 1987), pp.68-73.

시는 확연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 (2) 하이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위선은 성적 억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시기의 페티시에는 구두와 스타킹까지는 포함되는데 이는 여성의 발목을 힐끗보고도 쉽게 흥분하는 남성들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는 강조되었지만 다리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다. 구두의 크기처럼 구두의 높이도 성적 함축성을 갖는다. 르네상스시대 쇼팽느(Chopine: 16세기 후반 굽이 높지 않은 이태리식 구두)가 있었는데 특히 고급매춘부가 애용했던 것은 매우 높은 플랫폼(platform)구두였다. 많은 문화권에 존재했던 플랫폼 구두가 늘 에로티시즘만을 상징했던 것은 아니다. 착용자의 높은 신분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게다(гета)같은 플랫폼 구두는 진흙길을 걸을 때 진흙이 묻지 않게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높은 일종의 '구속'이었던 신발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로틱한 감정을 느꼈다. 굽높은 신을 신은 여성은 남편이나 하인에게의 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육체적 심리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17세기 유럽의 구두제조자들은 플랫폼 구두를 수정하여 하이힐을 개발해 내었다. 처음에 남녀공용이었으나 차츰 여성전용이 되었다. 따라서 하이힐의 성적 매력은 여성성과 동시시 되었다.

Krafft-Ebing은 아마도 대다수의 구두 페티시스트들은 마조키스트일 것이라고 했다. 남성의 발이 크면 페니스가 크다는 속담이 있고, 페티시한 부츠는 매춘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예쁜 발을 섹시한 뽀족 굽 힐속에 넣는 페티시광고는 남근을 상징하는 발을 구두라는 질 대응물과 대응시킨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구두는 빈번하게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구두는 소년이 어머니의 스커트를 올려다 보았을 때 끔찍한 여성의 생식기를 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은 신체와 동일시된다. 맨발은 나체로 인식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노출된 신은 성욕을 일으키기도 한다. 발가락 사이의 틈은 유방사이의 틈이나 여성 신체의 다른 틈(slit)

을 연상 시키기 때문이다.

페티시하다고 인정되는 의류 항목들에는 반드시 역사적,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 하이힐은 우리 문화 속에서 성적인 요소들의 이미지와 부합되는데 이런 이미지는 매춘부나 복장도착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원인이다. 반면 굽 낮은 구두는 성적 매력이 없음을 뜻한다. 여성의 성적 매력과 관계된 많은 특성들이 하이힐로 강조되어지며, 하이힐은 걸음걸이와 자세에 영향을 준다. 하체를 긴장시키고 엉덩이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올려주며, 등은 꼳꼳이 펴게 해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S-silhouette을 만들어준다. 또 다리와 종아리의 윤곽선을 강조시키고, 발목과 발을 앞쪽으로 쏠리게하여 매혹적인 긴 다리를 만든다.

페티시가 강력한 시각적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이다. 예로서 광택있는 검은색 구두는 시선을 모으고, 검은색 스타킹은 흰 피부를 더욱 강조한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성적 흥분 패턴은 보다 시각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남자아이는 어려서부터 색깔 이전에 이미 백색 바탕위의 검정색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의 색과 실루엣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또 남성은 어린시절 어떤 타입(뽀족 굽 구두같은)의 구두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한편, 여성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구두의 문화적으로 형성된 타입에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프로이트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이 신은 구두를 벗길때 남성이 느끼는 묘한 스릴 때문에 여성들이 구두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이때 느끼는 스릴은 설명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남성적 시각에서의 분석이다.

## III. 결 론

인간의 성은 역사와 자연의 공동산물이다. 페티시즘같은 변칙적인 성을 포함한 인간의 성행위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다. 패션은 잠재된 개인의 성의식과 사회문화적 요인-가부장제 사회속에서 강요되고 억압된 여성성의 고정관념-의 복합적 산물이다.

(1) 프로이드사상의 핵심인 남근선망과 거세공포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승화되지 못한 자기애(narcissism)는 외양에 관심을 갖고 신체보다 의상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열정은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하에서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여성패션은 특정 신체부위의 노출, 은폐, 강조 등을 통한 유혹의 원칙(seduction principle)에 의해 조절되며, 변화하는 페티시한 부위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것이 패션작업이다. 그러나 여성패션의 이러한 기형적인 발달은 남성을 유인하는 문제에 경제적 생존을 결어야 했던 사회적 이유때문이었다고 본다.

(2) 인간의 성행위는 자연선택이론에 따라 진화했고, 이것은 패션에도 적용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2차 성징은 이성에게 하나의 성적매력의 요소로서 남게 되고 세대를 지남에 따라 생식에 적합한 그 인자들이 선택되어 진다. 또 남성의 성은 '목표-탐색'의 관계로 진화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하여 보다 시각적이고 페티시한 성적 환상(sexual fantasies)을 수반하기 쉽다.

진화의 메커니즘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성적 선택이며 삶의 조건과 가장 성공적으로 투쟁한 자만이 우위에 설수 있다는 경쟁과 전쟁의 철학을 인간사회와 패션 발달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요하는 집단체제를 향해서 발전하는 즉, 에고이즘보다는 이타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여성의 종속화는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자연스러운 탈선이라고 본다.

(3) 남근숭배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페티시즘은 남녀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로 성의 관심을 전이시킨 일탈된 성의 개념이다. 프로이드는 페티시를 거세당한 모친의 페니스 대체물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여성이 남근을 소유하고자 하는 순간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결국 페티시는 거세공포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여성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의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페티시즘을 '에로틱 심벌리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페티시하다고 인정되는 의류항목들에는 반드시 역사적, 문화적 원인이 있다. 또 남녀간의 생물학

적 차이가 페티시 대상물의 인지에 있어서 남녀차이의 원인이기도 하다. 즉 남성은 특정 스타일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여성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페티시한 타입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또, 남성은 여성의 미에 매료되지만 그 눈은 심미안이 아닌 에로틱한 눈이기 때문에 미를 올바르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4) 콜셋은 남성을 위한 시각적 자극일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촉각적 자극제였다. 콜셋으로 인한 압박은 운동으로 인한 신체단련의 쾌감보다 한층 강한 자극으로 작용하여 묘한 성적 쾌감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콜셋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었고, 결과적으로 콜셋없는 생활할 수 없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콜셋과 전족에 의한 여성신체의 속박은 직접, 간접적으로 자기억제와 순종의 미덕을 강요하게 되었고,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통제의 보호물로서 받아들였다. 이는 마치 중세의 정조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전족과 하이힐은 동서양의 '문화적 유사 페티시즘'으로서 확연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는 타이트레이싱 콜셋과 하이힐, 전족과 같은 전형적인 페티시 품목들 뿐 아니라 가죽과 고무, 문신과 바디피어싱(body-piercing) 등의 페티시 요소들이 점차 대중 패션의 주류속으로 결합되고 있다. 또 페티시즘에서 영감을 얻은 의상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속옷의 겉옷화 추세 등으로 보아 페티시즘은 이제 더 이상 일부의 하위문화도 성도착도 아닌 패션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콜셋과 슈즈로 범위를 국한하였으나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언더웨어를 포함한 패션과 페티시즘의 관계를 페미니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October 21, 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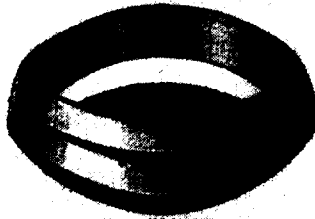
SOCIETY.

1945

**MADAME DOWDING,**  
 8 & 10, CHANCING CROSS ROAD (Opposite the National Gallery, Trafalgar Square),  
 Ladies' Tailor, Corsetiere, and Court Dressmaker.



No. 1--THE HARB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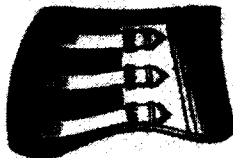


No. 2--THE BEL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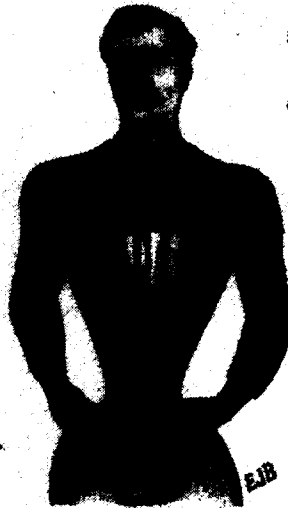


No. 3--THE KITCHE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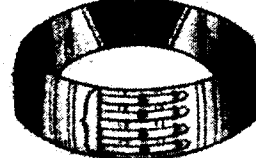
A 36in.  
 B 24in.  
 C 26in.  
 D 8in.  
 E 4in.  
 F 10in.  
 G 5in.



No. 4--THE BUSINESS BE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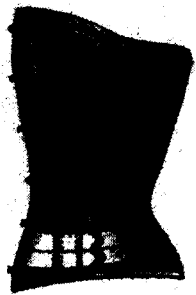
No. 5--THE QUEEN.



No. 6--THE SLEEPING BELT.



No. 7--THE QUEEN OF CORSETS.  
 In the Improved HARBOUR shape.



No. 8--THE QUEEN.



No. 9--THE IMPROVED BELGIAN CORSET.

From 20/- to 7/6. Patterns. 20/- 10/- to 10/-, from 20/-.

No. 1--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2--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3--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4--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5--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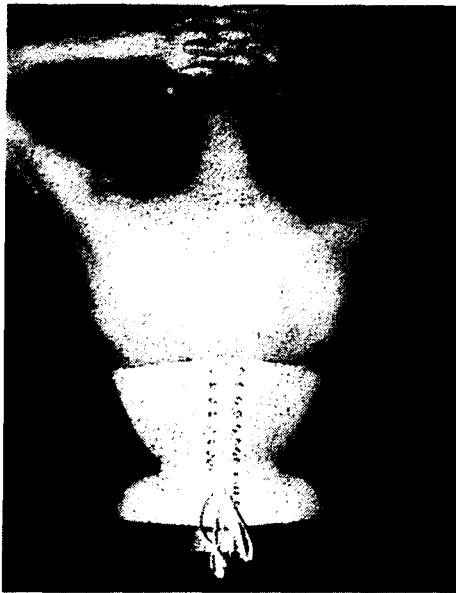
No. 6--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7--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8--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No. 9--A good corset with military girdles. With double, from 20/-; Black and Navy, from 20/-.

Madame Dowding begs to thank the numerous West End Tailors for their kind recommendations. All communications to be sent to the above ad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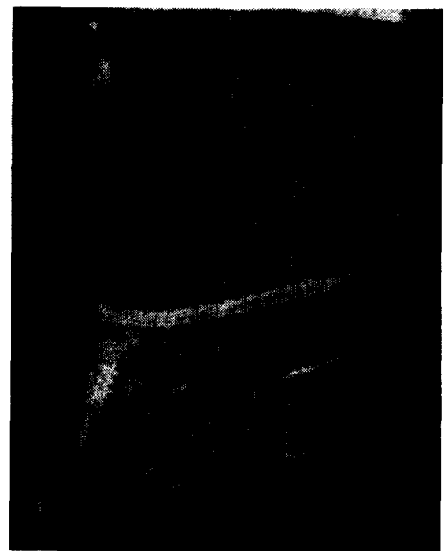
남성 타이트 레이스, Pearl  
(Travis Hutchison)



세계에서 가장 가는 13인치 허리, Ethel Granger  
(Fakir Musafar and Body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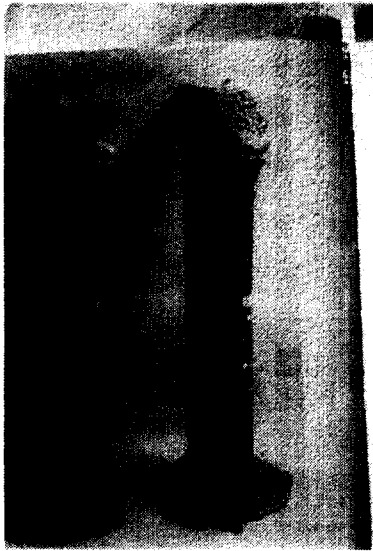


전족(중국인과 에로스)



수단(繡緞)신, 19C, 중국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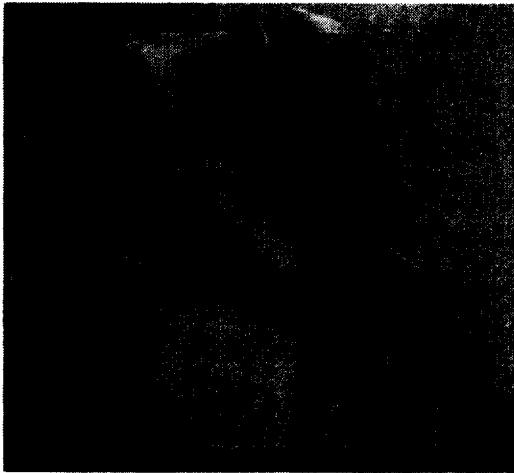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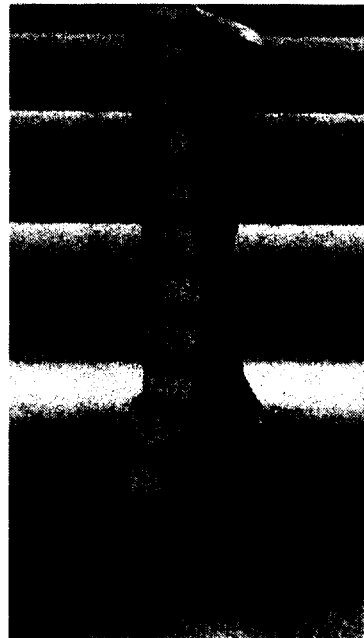
8인치 굽의 페티시 슈즈, 1900년경, 비엔나  
(Correr Museum, Ven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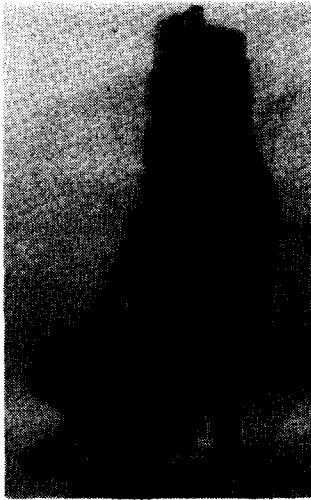
8인치 굽의 가죽 쇼펜느, 16C. 베니스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검정가죽 플랫폼 페티시 부츠, 파리  
(Billyboy, Paris)



페티시 부츠, 1925, 파리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보석박힌 플랫폼 슈즈, 1925, 파리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페티시 슈즈, 1950년대 중반



페티시 플랫폼 슈즈, 1950, 파리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검정가죽 페티시 부츠



11인치 검정가죽 페티시 부츠,  
(Musee de la chaussure, Romans)

## 【참고 문헌】

- 1) Baudot, Francois, ALAiA(London: Thames & Hudson, 1996).
- 2) Chadwick, Whitney, Women, Art, and Society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4).
- 3) Charles, Nickie and Felicia Hughes-Freeland, Practising Feminism(London: Routledge Press, 1995).
- 4)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London: Routledge, 1994).
- 5) Davis, Fred, Fashion, Cultural and Identity(New Y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6) Donovan, Josephine, Feminist Theory: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American Feminism(New York: Frederick Ungar Co., 1985).
- 7) Evans, Caroline & Minna Thoronton, Women & Fashion(London: Quarter Books Ltd, 1989).
- 8) Evans, Judith, Feminist Theory Today(London: SAGE Press, 1995).
- 9) Felski, Rita, The Gender of Modernity(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10) Laver, James,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London: Thames & Hudson Ltd, 1982).
- 11) Laver, James, Fashion make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New York: The Brooklyn Museum, 1962).
- 12) Marwick, Arther, Beauty in History: Society, Politics and personal appearance c.1500 to the present(London: Thames and Hudson).
- 13) M,Dowell, Colin, Dressed to Kill: Sex Power & Clothes(London: Hutchinson, 1992).
- 14) Steele, Valerie, Fetish(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15) Steele, Valerie, Women of Fashion: Twentieth-Century Designers(New York: Rizzoli, 1991).
- 16) Trasko, Mary, Heavenly Soles: Extraordinary Twentieth-Century Shoes(New York: Cross River Press, 1989).
- 17) Tong, Rosemarie,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London: Routledge Press, 1995).
- 18) Waugh, Norah, Corset and Crinolines(London: Routledge Press, 1995).
- 19) Webb., Peter, The Erotic Arts(London: Secker & Warburg, 1975).
- 20) Willett, C. and Phillis Cunningham, The History of Underclothes(New York: Dover Publication, 1992).
- 21)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 Fashion and Modernity(London: Virago Press, 1985).
- 22) 김동규, Libido의 발달과정과 성격형성론(서울: 교육과학사, 1994).
- 23) 김동일, 성의 사회학(서울: 문음사, 1996).
- 24) 마가렛 L. 앤더슨, 이동원·김미숙역, 성의 사회학(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25) 마르쿠제, 김인환역,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4).
- 26) 박상운, 진화(서울: 과학전파사, 현대과학총서 62, 1995).
- 27) 이명수, 중국인과 에로스(서울: 지성문화사, 1996).
- 28) G.트릭, 이재영·도화진 역, 세계여성사(서울: 문예출판사, 1995).